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석사학위논문

세계화 과정 속에 나타난 태권도의 이중성과 모국으로서의 갈등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정 용 민

세계화 과정 속에 나타난 태권도의 이중성과 모국으로서의 갈등

The duality of Taekwondo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nd conflict as mother country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정 용 민

세계화 과정 속에 나타난 태권도의 이중성과 모국으로서의 갈등

지도교수 이 계 행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정 용 민

정 용 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윤 오 남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재 환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계 행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ABSTRACT

The duality of Taekwondo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nd conflict as mother country

Jung, yong-Min

Advisor: Prof. Lee, Gye-haeng, Ph.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aekwondo, which holds two titles, Dance and Sports, can be seen as a symbol of the world's attention and love, but it is not the need to change or not the sport.

Therefore, under the theme of “Doubleness of Taekwondo in the Globalization Process and Conflict as a Country,” this study looked at existing taekwondo discourse as a cautionary perspective and established the identity of Taekwondo in a proper wa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aekwondo spirit based on traditional ideas has a problem of lack of originality that is not unique to Taekwondo alone. Second, the spirit of Taekwondo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training can change depending on where you view the main body. Third, Taekwondo mind cannot be called Taekwondo mind.

In short, Taekwondo still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Taekwondo spirit. The reason is that most of the discussions on taekwondo have been discussed so far, with abstract and non-visual philosophical concepts or terms attached to them, or

with research to derive the spirit inherent in Taekwondo training. Of course, many scholars who advocated the spirit of Taekwondo spared no effort to establish a firm Taekwondo spirit based on the traditionally written spirit and the philosophical theory involved. However, it is judged that no one was satisfied to find out something else (the spirit) Taekwondo has, while listing the psychologically relevant theories in asserting his logic.

The researcher's rebuttal eventually returns to the initial question, "Is there any spirit in Taekwondo?" However, if we agree that the term "mind" is an acceptable concept only for humans, we will be able to realize that there has been a great error in our questions. In other words, it would be the exact question and answer of the Taekwondo mind, assuming that Taekwondo is needed to set its goals and values in practicing Taekwondo, instead of trying to find it in a celebrity.

In addition, water has no fixed form. Rather, the essence of water is that the shape changes with the bowl. Therefore, water remains intact in any type of bowl. In other words, water does not insist on itself, is round in a round place, and Moji in a harsh place (Jang Il-soon, 1997).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stored, if they are alive, the nature of the water is well preserved.

Taekwondo is also a well-wrapped body in any form, but if it can preserve its essence with respect to its beauty, it is round in a round place, and it is not a problem to collect it in a remote place.

However, if we look at the history of Taekwondo, we have inadvertently damaged the nature of Taekwondo, which is the essence of Taekwondo. In particular, it is true that the rapid growth of Taekwondo is accompanied by a combination of compressed modernization (Koreanization/economicization/globalization) as well as the structural risk factors (history distortion/distinguistics/an ethics).

I bet Taekwondo is a dance. And at the same time, it is also a sport. The two have a causal relationship to describe taekwondo today. Of course, is Taekwondo a martial art? Is it sports enough to raise doubts? However, Taekwondo, which has developed as a form of martial arts, cannot simply be described as something.

For example, the hometown of Hong Gil-dong, currently residing in Seoul, is not known as a general in South Jeolla Province, so he is not a citizen of Jangseong-gun. Furthermore, he may move to Seoul, Daejeon, Daegu, Busan or abroad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Hong Gil-dong is from a general, he can become a Seoul citizen, Daejeon citizen, Daegu citizen, Busan citizen, or foreign resident. Hong Gil-Dong, a Seoulite from Jangsung. That does not change the nature or substance of Hong Gil-dong.

To sum up, Taekwondo should now seek unclassified, not part, but part, unclassified, such as convergence,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that reflect the social trend of modern times (though conceptually different depending on each characteristic and expression). Such attempts will serve as a system to realize the ideal Taekwondo wishes to pursue, and the result will be a grand view of the expansion of thinking about convergence and the expansion of “unified sport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제한점 및 범위	3
II. 이론적 배경	4
1. 세계화와 국제화	4
2.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	5
3. 태권도 세계화 조건과 성공요인	9
1) 태권도 관련기구의 건립배경과 역할	9
2) 해외파견을 통한 태권도의 세계화	12
3) 경기화를 통한 태권도의 세계화	13
2) 시범단 파견을 통한 태권도의 세계화	14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6
1. 연구방법	16
1) 실증적 연구방법	17
2) 해석적 연구방법	17
2. 연구절차	17
1) 질(質, quality)	18
2) 양(量, quantity)	18

IV.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한 득(得)과 실(失)	19
1. 태권도의 이중성과 정체성	19
2. 태권도 모국과 종주국	20
3. 태권도 공식언어: 영어	22
V. 결 론	24
참고문헌	2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세계화에 성공한 무도·스포츠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에서 제시하는 5개 대륙(Asia, Europe, Pan America, Africa, Oceania)에 걸친 209개국의 회원국과 약 8천만 명에 다다른 수련인구는 태권도가 전 세계 대중적인 무도·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해외파견 지도자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로, 그리고 태권도 관련기구의 주도적 역할과 활동, 정부의 지원, 경기로의 전환 등(김주연, 2007; 김주연, 김은정, 정응근, 2007; 나영일, 2010; 최종균, 2012; 성제훈, 2014)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특정 문화가 성공적으로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개인의 노력과 관련 조직의 역할 및 활동,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 전 세계의 보편 문화로 자리 잡은 스포츠 문화에 편승하기 위해 태권도 경기규칙을 제정하고, 국제 스포츠관련 조직에 가입하여, 다양한 수준의 시합을 개최하는 등 스포츠화를 서둘렀던 점 역시 태권도의 세계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송형석, 2017)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 중에서 전체 가맹국수 7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여 유도, 레슬링 등과 같은 투기종목 중 가장 세계화에 성공한 투기종목이라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의 경기화가 곧 세계화로 이어지는 스포츠 문화의 독특한 현상 속에

서 태권도는 1960년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등록을 시작으로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세계화의 효시를 알렸다.

요컨대 태권도는 본래 자기보호, 호국정신, 무도정신 계승 등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태권도가 가진 본질적 가치는 우리민족 고유의 사상적 의미를 내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함은 물론 가정을 보호하고, 사회를 수호하며 나아가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태권도는 경기화로 인해 정신적인 본질이 점차 퇴색되면서, 급기야 유아용 스포츠, 경기위주의 단편적인 스포츠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태권도 제도권의 착오와 태권도 고유의 기술체계 및 정신 계승을 위한 전통적 가치의 훼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도·스포츠라는 두 개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오늘날의 태권도는 세계화에 성공하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혹여 자칫하면 무도도 아닌, 스포츠도 아닌 채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깊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김지혁, 구강본, 남중웅, 2016). 즉 지난 40여 년간 태권도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으로 이룬 태권도 세계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태권도의 세계화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태권도의 세계화는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갔으며, 그 구조적 형태와 방법은 어떠했는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고,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재해석함으로써 전략적 수정을 통해 발생한 사적(史的) 오류를 최소화함은 물론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해 얻은 득(得)과 실(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세계화가 “지구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변화를 일컫는 말” 임에 집중하여, 과연 태권도가 세계화에 진정

성공한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이어갈 것이다. 연구자의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태권도가 왜 세계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과 미래지향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그 형식적 틀을 보다 탄탄하게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범위

이 연구는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집중하여, ①세계화의 태동기→②태권도 조직구축→③세계진출과 안정화 단계까지 3세대에 걸쳐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인문학적 문헌연구의 한계와 역사적 기록의 오류로 인해 연구의 방법적 구조와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이 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연구자는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검증을 통해 사적(史的)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세계화와 국제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른바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사전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한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무대로 뻗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생활의 질을 세계의 수준으로 평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를 강조하게 되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힘이나 문화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¹⁾이다(통합논술개념어사전, 2007). 그런데 우리는 세계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화’란 용어를 종종 접하곤 한다.

요컨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란 한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으로 다른 국가와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무대를 발판으로 하는 세계화와는 달리 국제화는 두 나라 이상이면 성립된다(통합논술개념어사전, 2007). 즉 국제화가 단순히 우리 것이 국경을 넘어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세계화는 여러 국가의 것이 융합되어 새로운 국제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송준, 2013). 이처럼 서

1) 이를 경계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여 세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자체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세계화는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외국 문화의 영향에 쓰러지게 된다. 따라서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①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적 원칙이나 가치, 즉 인권 존중, 환경 파괴 규제, 창의성 존중, 자율성 확립 등을 지켜야 한다. ②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의 길을 걷거나 정체성 없는 문화가 된다. ③ 전통 문화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성공하는 지혜는 전통 문화 속에 담겨 있다. ④ 인간 존엄, 세계의식 육성, 다원적 가치 인정, 신구의 조화 등 정신문화를 강화해야 한다.(통합논술개념어사전, 2007)

로 다른 의식과 행동을 갖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협력하는 소통과 융합의 과정은 오늘날 모든 영역에 있어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포츠 역시 예외는 아니다.

2.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

태권도는 새로운 한류문화콘텐츠로 평가받을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즉, 한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속에 정착한 것처럼, 태권도 역시 1960년대 전·후를 시작으로 해외파견사범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현재에는 무려 209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태권도의 세계화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김은철, 2013).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복, 한글, 김치, 불고기, 불국사, 석굴암,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세계적인 예술인」 등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문화의 상징으로 선정하여 규정(문화체육관광부, 2011)하고 있는데, 이처럼 태권도를 한국의 문화상징 C. I. Best 10으로 선정한 주된 이유는 가장 한국적이라는 것이며, 태권도가 민족문화로써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태일, 2005).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을 살펴보면, 1966년(8개국), 1972년(36개국), 1978년(55개국), 1980년(102), 2000년(160개국), 2008년에는 188개국, 2018년 현재에는 무려 209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Asia 43개국, Europe 50개국, Pan America 45개국, Africa 52개국, Oceania 19개국(세계태권도연맹, 2018) 등 대륙별로 고루 분포되어 약 8천만 명의 인구가 수련하고 있으며, 전 세계 태권도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경기의 정식 종목이기도 하다. 태권도가 올림픽경기의 정식 종목이라는 말은 그것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관심의 대상이라는 말과도 같다. 28개 올림픽 정식 종목 가운데 동양에서 유래한 종목은 유도과 태권도뿐이다. 또한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지만 전 세계 태권도수련자는 1억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품과 단의 소지자는 모두 96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기원, 2017. 02. 23). 이로 미루어 짐작할 때 태권도는 다수 세계인에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세계화에 성공한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정관호, 2017).

표-1. 대륙별 태권도 가맹국 수

As of 2017, the global membership of the WT stands at 209 national member associations, spanning five continents.



대륙/지역	가맹국 수
아시아태권도연맹(ATU)	43
유럽태권도연맹(ETU)	50
팬아메리카태권도연맹(PATU)	45
아프리카태권도연맹(AFTU)	52
오세아니아태권도연맹(OTU)	19
계	209

자료출처: 세계태권도연맹(2018)


표-2. 대륙별 태권도 가맹국 현황

Regional Unions	Member Nations of The Taekwondo			
 <p>ATU (43 Members)</p>	Afghanistan	Bahrain	Bangladesh	Bhutan
	Brunei Darussalam	Cambodia	Chinese Taipei	East Timor
	Hong Kong	India	Indonesia	Islamic Republic of Iran
	Iraq	Japan	Jordan	Kazakhstan
	Korea	Kuwait	Kyrgyz Republic	Laos
	Lebanon	Macau	Malaysia	Mongolia
	Myanmar	Nepal	Oman	Pakistan
	Palestine	People's Republic of China	Philippines	Qatar
	Saudi Arabia	Singapore	Sri Lanka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urkmenistan	United Arab Emirates
	Uzbekistan	Vietnam	Yemen	
	 <p>ETU (50 Members)</p>	Albania	Andorra	Armenia
Azerbaijan		Republic of Belarus	Belgium	Bosnia & Herzegovina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Great Britain		Hungary	Iceland	Isle of Man
Israel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Kosovo	Luxembourg	Republic of Moldova
Monaco		Montenegro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Norway	Romania
Russia		San Marino	Slovakia	Slovenia
Serbia		Spain	Switzerland	Turkey
Sweden		Ukraine		

자료출처: 세계태권도연맹(2018)

Regional Unions	Member Nations of The Taekwondo			
 PATU (45 Members)	Antigua & Barbuda	Argentina	Aruba	Bahamas
	Barbados	Belize	Bermuda	Bolivia
	Brazil	Canada	Cayman Islands	Chile
	Colombia	Costa Rica	Cuba	Curacao
	Dominique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French Guiana	Grenada	Guadeloupe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artinique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Puerto Rico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int Kitts and Nevi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Uruguay	USA	Venezuela	Virgin Islands, British
	Virgin Islands, US			
	 AFTU (52 Members)	Algeria	Angola	Benin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Cote d'Ivoir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gypt
Equatorial Guinea		Eswatini	Ethiopia	Gabon
Gambia		Ghana	Guinea	Republic of Guinea-Bissau
Kenya		Lesotho	Liberia	Liby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rocco	Mozambique	Niger
Nigeria		Rwand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malia	South Africa
South Sudan		Sudan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ogo
Tunisia		Uganda	Zambia	Zimbabwe

자료출처: 세계태권도연맹(2018)

Regional Unions	Member Nations of The Taekwondo			
 <p>OTU (19 Members)</p>	American Samoa	Australia	Cook Islands	Fiji
	French Polynesia	Guam	Kiribati	Marshall Islands
	Micronesia	Nauru	New Caledonia	New Zealand
	Palau	Papua New Guinea	Samoa	Solomon Islands
	Tonga	Tuvalu	Vanuatu	

자료출처: 세계태권도연맹(2018)

3. 태권도 세계화의 조건과 성공요인

1) 태권도 관련기구의 건립배경과 역할

태권도는 해방이후 태권도 관련기관들이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세계화를 시작하였다. 오늘날 태권도의 세계화에 앞장선 태권도 관련기구의 건립배경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기원(World Taekwondo Headquarters)²⁾

국기원은 1972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건립되어 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와 함께 세계태권도연맹 발족을 주도하면서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도관, 청도관, 무덕관, 송무관, 창무관, 오도관, 정도관, 강덕원, 한무관, 관리관 등 10대 관을 통합하여 태권도의 화합을 이룩하면서 태권도의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

이러한 국기원의 세계화 정책은 수련인구 확대를 통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

2) 국기원의 건립배경과 역할에 대한 내용은 자료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기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

으로서 채택 및 유지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승품·단 심사 제도를 마련하여 태권도의 기술 및 실력의 객관화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수많은 유품(단)자를 배출하여 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기원은 지도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3년을 시작으로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을 개원하여 태권도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사범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약 5만 명의 태권도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범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고 있다.

요컨대 국기원은 새로운 무도스포츠 문화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태권도를, 정부 또한 국가 브랜드로 지정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경쟁력을 높여 태권도 문화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2) 세계태권도연맹(WT: World Takwondo)

세계태권도연맹은 대한민국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를 경기화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고, 국제스포츠 종목으로 정식 채택되게끔 하기 위해 건립한 국제규모의 연맹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 건립을 기념하고 세계기구 창설이라는 대전제 하에 1973년 5월 25~27일까지 3일간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처음으로 해외의 각국 선수들을 초청하여 16개국 18개 팀에 16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성대히 치러졌다(강원식, 이경명, 2002).

세계태권도연맹은 창립 당시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를 비롯하여 35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초대 총재는 김운용이었다. 이후 1975년 10월 GAISF(General Assembly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국제경기연맹)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두산백과, 2018).

세계태권도연맹은 고유의 태권도정신과 더불어 태권도를 전 세계적으로 올바르게

보급시키고, 태권도 경기를 통해서 빠르게, 강하게, 정확하게를 경기의 이상으로 추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연맹으로서 올림픽현장의 일반 및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태권도의 정신철학, 기술개발 및 승단사정에 관하여는 고유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장려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윤종완, 1998).

세계태권도연맹은 다양한 국제대회, 강습회, 시범경기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유럽, 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중동 등에 태권도연맹을 조직/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간지 「World Taekwondo」, 「WT News」, 「Taekwondo」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본부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 있다.

(3) 국제태권도연맹(ITF: International Takwondo Federation)³⁾

최초의 국제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국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은 1966년 3월 22일에 건립되었다. 태권도를 개발했던 이들 중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최홍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최홍희가 초대 총재직을 맡았다.

오늘날 정통성을 가진 태권도 단체는 세계태권도연맹(WT)이지만, 건립으로 따지면 국제태권도연맹이 대한태권도협회보다 먼저 앞선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考 최홍희 장군의 시절을 후역사로 풀이한다. 대한태권도협회가 1959년도에 최홍희의 주도로 설립되고 이후 1961년도에 대한태수도협회로 재창설했는데, 이는 최홍희가 말레이시아 대사로 해외근무를 하는 동안 최홍희와 의견 불일치를 냈던 관장들이 주도하여 멋대로 재창설된 것이다. 결국 해외 근무에서 돌아온 최홍희 총재가 재취임하여 3대 회장이 되었는데, 최홍희 총재가 차후에 설립한 ITF는 초기 대태협을 창설했던 최홍희 총재의 목표와 정신이 그대로 계승된 조직이라 평가한다.

3) 국제태권도연맹의 건립배경과 역할에 대한 내용은 자료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태권도 용어정보사전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

2) 해외파견을 통한 태권도의 세계화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는 해외파견 태권도지도자들의 노력과 애환 그리고 상처와 환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초창기 해외파견지도자는 일본인들에 의해 먼저 정착했던 가라테의 경계와 텃세에 고전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동양에 선진국은 일본뿐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하여 태권도는 카라테 또는 코리안 카라테로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해외파견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하였으며, 공방의 기술체계 뿐만 아니라 무도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 등을 지도함으로써 동양무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며 태권도의 매력을 적극 어필하였다. 그 결과 태권도는 가라테를 누르고 명실상부 세계 제일의 무도스포츠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정재환, 2008).

특히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기점으로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태권도의 모국인 대한민국의 지도자(사범)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는 태권도 세계화 과정에 더욱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태권도의 기술이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자 수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에 걸맞게 해외에 파견된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장태호, 2004).

표-5. 해외파견 태권도지도자 연도별·지역별 현황(한국국제협력단, 2008)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아시아	4개국 4명	5개국 5명	4개국 4명	4개국 4명	4개국 4명	5개국 5명	5개국 5명	5개국 5명	5개국 6명	6개국 6명	6개국 6명	6개국 6명	7개국 7명	7개국 7명	7개국 7명	7개국 7명
중동	2개국 3명	2개국 2명	2개국 2명	1개국 1명	1개국 1명	1개국 1명	2개국 4명	2개국 4명	2개국 4명	2개국 2명	2개국 2명	2개국 2명	2개국 2명	2개국 2명	2개국 2명	2개국 2명
아프리카	11개국 13명	11개국 13명	10개국 11명	6개국 8명	6개국 7명	5개국 6명	5개국 6명	5개국 6명	3개국 3명	4개국 4명	4개국 4명	4개국 4명	7개국 7명	7개국 7명	7개국 7명	7개국 7명
중남미															1개국 1명	1개국 1명
동구 및 CIS			1개국 1명	1개국 1명	1개국 1명	1개국 1명	1개국 1명	1개국 1명		2개국 2명	3개국 3명	3개국 3명	3개국 3명	3개국 3명	3개국 3명	3개국 3명
계	17개국 20명	18개국 20명	17개국 18명	12개국 14명	12개국 13명	12개국 14명	13개국 16명	13개국 16명	10개국 13명	14개국 14명	15개국 15명	15개국 15명	19개국 19명	20개국 20명	20개국 20명	19개국 19명

3) 경기화를 통한 태권도의 세계화

주지하다시피 태권도가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경기화를 통한 스포츠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가 스포츠를 수단으로 성장하지 않았더라면 도장 수련에만 전념하는 무예적 측면으로서만 존재했을 것이며, 일본의 가라데나 중국의 유수한 무술들을 능가하는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자랑으로 삼지 못했을 것이다(안용규, 2006).

그러나 태권도 경기화는 만장일치의 찬성 속에 순조롭게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 1960년대 중반 태권도의 경기화가 가시화되자 태권도 지도자 사이에 그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강원식, 이경명, 2002).

최홍희는 그의 저서에서 “태권도 경기화는 태권도 기술의 3대 요소인 형, 대련, 격과 중에서 대련만으로 승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불리하다. 따라서 시합할 때 착용하는 호구가 기술을 완전히 발휘하게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반대한 바 있으며, 황기 또한 태권도를 무술로 규정하면서 “무술이란 원래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인 대련으로 하는 것이므로 시합이 불가능하다. 기술이 그 형태나 방법에서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므로 경기화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그는 또 “경기화는 결과적으로 무도정신을 무시하게 되고, 단급의 심사제도가 불필요하게 된다” 며 태권도의 경기화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태권도 경기화의 움직임은 태권도가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포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입어 경기규칙 제정과 함께 태권도의 경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광복이후 경기규칙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던 때를 태권도의 경기화의 시작이자 세계화의 초시라 볼 수 있다.

태권도 경기는 1962년 10월 24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열렸던 제43회 전국체육대회에 시범종목으로 참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6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태권도의 경기화는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태권도 전문선수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태권도 경기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경기가 국내에서 차츰 정착하자 1968년 제1회 주한외국인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를 개최(장충체육관)함으로써 태권도 세계화의 기틀을 다졌다. 성공적인 경기 대중화에 고무된 대한태권도협회는 1973년 5월 23~25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처음으로 해외의 각국 선수들을 초청하여 16개국 18개 팀에 161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태권도 경기 국제화의 시효를 열게 되었다(강원식, 이정명, 2002).

4) 시범단 파견을 통한 태권도의 세계화

태권도가 세계화되는 과정에 있어 시범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해외파견지도자들은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가라테 또는 코리안 가라테라는 이름을 붙여가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시범 기술과 겨루기 기술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보급시켰으며, 정부와 협회가 조직하여 해외로 태권도를 보급/발전시키기 위해 시범단을 적극 파견하였다(정재환, 2008).

이후 해외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태권도사절단을 만들어 세계 곳곳으로 태권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1963년 대한태수도협회 초청으로 15명의 태수도선수단이 일본의 도쿄, 나고야 등에서 약 20일간 체류하면서 일본선발팀과 대학선발팀과 친선경기를 통하여 태권도에 대한 우수성을 일본에 알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세계 18개국을 순회하는 태권도사절단이었다(조선일보, 1963).

태권도의 화려한 발기술과 단련된 신체를 이용한 격파와 품새, 겨루기, 호신술 등과 같은 아름다움 속 위력적인 시범은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기 충분하였으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게 되었다.

특히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의 식후 공개행사의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 진수를 전 세계인들에게 유감없이 선보였던 걸작 중의 걸작이었으며, 한편 국내에서도 유명 국제 체육계 인사, 정부 고위직 또는 언론인의 방한시에는 국기원에서 시범을 관람함으로써 태권도가 국제적인 스포츠로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삼았다(윤종완, 1998).

이러한 태권도시범단의 해외개척은 태권도 우수성 및 한민족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양국간의 스포츠를 통한 우호증진 및 국가교류를 가능케 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며, 지구촌 태권도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정재환, 2008).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태권도 세계화와 관련하여 사적 관련 문헌을 우선적으로 탐구하고,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인문학적 질적 연구의 귀납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특히 일반 역사학의 근간이 되는 연구방법 중 실증적 연구방법과 해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학(史學)에서의 이 두 연구방법이 갖는 각각의 오류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1) 실증적 연구방법

실증적 연구방법은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경험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려는 연구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사회조사나 실험 등에 의해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치로 계량화한다. 계량화란, 한 국가의 경제성장 정도는 국내 총 GDP 증가율을 통해서, 학업의 성취도는 시험성적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능력은 지능 검사(IQ) 점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계량화된 자료는 차이가 ‘있다’ 또는 ‘없다’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정확하고 세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수량화가 가능한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고도로 발달된 통계적인 분석 기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과학처럼 가설의 검증 및 법칙 발견에 그만큼 편리하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방법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성, 의식, 가치 등의 정신적 영역을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와 사실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과학에서처럼 연구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과 분석이 쉽지 않다(통합논술개념어사전, 2007).

2) 해석적 연구방법

해석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경험, 지식,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계량화가 어려운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 혹은 사회 조직과 제도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 예를 들어, 실증적 연구방법이 친구와 함께 놀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우정을 측정한다면, 해석적 연구방법은 친구와의 놀이와 대화에 어떤 ‘우정’의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보편적인 인과법칙을 추구하는 실증적 연구방법과 달리, 해석적 연구방법은 개별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강조하며, 주로 참여관찰이나 면접에 의해 자료를 수집한다. 해석적 연구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지만 개별사례를 통해 일반화된 지식을 얻기 어렵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의미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사회·문화 현상의 올바른 탐구를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방법과 해석적 연구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다(통합논술개념사전, 2007).

2. 연구절차

연구자는 체육학에서 대별하고 있는 연구방법, 즉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와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 이 두 가지 연구방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질⁴⁾(quality)과 양⁵⁾(quantity)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통해 태권도 세계화 과정 속에 득(得)과 실(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적 구조와 그 절차를 설정하였다.

4) 질이란 성질이란 뜻으로, 사물은 모두 무언가의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고 그것에 따라 한 사물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 이 때 질은 한 사물에 있어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 존재를 잃게 되는 것이며 모든 사물의 존재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질은 단순히 사물이 지닌 성질 일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철학사전, 2009).

5) 반면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일정한 양적 규정을 지니고 있다. 양이란 대소(大小)·다소(多少)·농담(濃淡)·변화의 완급 등 계량할 수 있는 규정성이다. 사물은 일정한 양적 단위에 의해 나누어지거나 모아질 수 있다. 양적으로 나누거나 모를 수 없는 것은 질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철학사전, 2009).

1) 질(質, quality)

성질이라고도 하며, 양(量)에 반대되는 말. ① 기본적인 범주의 하나로, ‘어떠한’이라는 물음에 대응하는 사물의 존재 양태에 관한 개념. 따라서 질은 양적 규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양적 규정이 변화하여도 질은 어느 한도 내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 질은 ㉠ 감각적(빛, 맛, 냄새 등과 같은)이거나, 비감각적(교양이 있다, 머리가 좋다 등)인 대상의 개별적인 측면을 가리킬 경우가 있고, ㉡ 이와 같은 몇 개의 질이 모여서 전체로서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는 규정성이 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② 사물의 가치적 차별을 질적 차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③ 논리학에서는 판단이 긍정 판단이나 부정 판단이나의 차별을 판단의 질이라고도 부른다.

2) 양(量, quantity)

질(質)에 대립되는 말. ① 기본적인 범주의 하나이며, ‘얼마만큼’이라는 물음에 해당하는 사물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사물의 수나 시간과 공간적인 넓이의 무게, 길이, 속도 등은 양적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이란 사물의 질적 규정을 제거해도 여전히 남아 있는 사물의 측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양은 일정한 단위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 점에서 보면, 사물의 양이 어떤 한도까지 변화해도 질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수학의 경우, 양은 사물의 양적인 측면만을 추상한 것으로 거기에는 외연량(extensive quantity)과 내포량(intensive quantity)의 구별을 둔다. 또한 ② 형식논리학에서는 판단이 전칭(全稱)인지 특칭(特稱)인지 구별하는 것을 가리켜 판단의 양이라고 부르고 있다.

IV.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한 득(得)과 실(失)

1. 태권도의 이중성과 정체성

우리는 태권도(跆拳道)를 설명하거나 이해함⁶⁾에 있어 대개 무도스포츠(Martial Sports)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태권도의 무도적 특성과 스포츠적 요소가 함께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태권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무도이자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무도적인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경기태권, 무도태권이라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용어의 표현은 태권도 경기는 스포츠로 이해하고 품새, 격파, 호신술, 시범 등은 무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오늘날 무도스포츠로 성장한 태권도를 단순히 경기태권, 무도태권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태권도에는 경기적인 측면과 무도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스포츠 상황에서의 태권도 경기에서도, 무도교육의 장인 태권도장에서도 함께 공존⁷⁾해야 하는 것이다(김지혁, 2010). 이처럼 태권도는 여타의 무도 내지 스포츠 종목과는 달리 무도적인 측면(무술 또는 무예)과 경기적인 측면(스포츠) 모두를

- 6)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창시되어 세계화된 국제공인 스포츠로서 손과 발을 주로 사용하여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심신수련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며, 기술단련으로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는 호신의 무술”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계태권도본부라 일컫는 국기원(Kukkiwon)에서는 태권도에 대해 “손과 발을 사용하여 방어와 공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동작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한국 전통 무예스포츠”라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의 정식가맹단체로서 태권도를 통합 관리하는 대한태권도협회(KTA)에서는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나 제한 없이 아무런 무기를 지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사용해 방어와 공격의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가 곧 태권도라 정의하고 있다(김지혁, 구강본, 남중웅, 2016).
- 7) 자칫하면 태권도를 이해함에 있어 그 본질이 각기 다른 성질을 지니면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태권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리들은 서로 다른 ‘구분’의 개념이 아닌 무도적인 측면과 스포츠적인 측면이 함께 융합되어 있는 ‘공존’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안재찬, 2014).

다루는 이중적 메커니즘(mechanism)을 지니고 있다.

요컨대 이중성(二重性)이란 하나의 사물이나 형태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중적 메커니즘 관점에서 태권도는 그간 오랜 역사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해왔으며, 그 과정 안에서 때로는 무술, 무예, 무도의 형태로, 때로는 경기의 형태로 그 모습을 탈바꿈해왔다.

이에 대해 김지혁, 구강분, 남중웅(2016)은 “무도와 스포츠가 발전해온 과정이 다르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도와 스포츠가 하나 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언급하면서 “무도스포츠란 용어를 해석적으로 접근할 때 과연 ‘무도/스포츠’ 인지, ‘무도·스포츠’ 인지, 아니면 무도와 스포츠 각각의 명사가 더해져 새롭게 나타난 복합명사로서 ‘무도스포츠’ 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무도가 추구하는 인간됨의 도리와 스포츠가 지향하는 승리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합용어 ‘무도스포츠’ 는 오늘날의 태권도와 대조해 볼 때, 용어상 엄청난 모순의 원리를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김지혁, 2010).

2. 태권도 모국과 종주국

「한국하면 태권도, 태권도 하면 한국」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속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태권도의 세계화는 민간외교적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태권도는 이제 대한민국 고유의 무도가 아닌 전 세계인이 즐기고 수련하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 관련문헌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신문, 잡지, 방송)에서 태권도를 표현함에 있어 태권도 종주국(宗主國)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태권도 ‘모국’ 인지 ‘종주국’ 인지 규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김은철, 안용규, 2011).

이에 서성원(2017)은 태권박스미디어를 통해 「태권도 종주국 vs 태권도 모국」 이란 주제로 논쟁을 이끌어간 바 있는데, 안용규는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말은 사용해선 안 됩니다. ‘종주국’ 이라는 표현은 ‘suzerain state’ 라는 뜻인데, 이것은 왕의 국가가 있으면 나머지 나라는 지배를 받는 식민국가라는 뜻입니다. 지금 태권도가 세계화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한다면 태권도를 배우고 사랑하는 국가들은 마치 태권도 식민국가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피력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박미자 역시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표현은 매우 주의할 필요로 하는 용어이다. 종주국이란 식민지와 함께 대별되어 사용되는 식민지적 용어(colonial term)이다.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이라면 세계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한국의 태권도 식민지 국가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태권도가 세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용어는 한문을 국어로 하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부정적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며 그 논리의 힘을 더욱 가중시켰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김종현은 “종주국의 의미 속에는 어떤 문화적 현상이 처음 시작한 나라라는 사전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며 태권도를 처음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론을 펴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종주국(宗主國)이란 “첫째, 자기 나라에 종속된 다른 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일부를 처리하는 나라, 둘째, 문화적현상과 같은 어떤 대상이 처음 시작한 나라”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상 국가의 일부가 자치(自治)를 인정받고, 대외적으로도 반독립을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반주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었을 경우 이것을 ‘종속국’이라 하는데, 그것과의 관계에서 본래의 국가를 ‘종주국’ 이라 표현하고 있다. 즉 종주국 자신은 보통의 독립주권국가이다. 반면 모국(母國)²⁾은 조상 때부터 살아온 나라, 또는 국적이 속하여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특히 서유럽과 영어 문화권에서는 할아버지의 나라 혹은 아버지의 나라라는 조국(祖國)이란 말보다 어머니의 나라라는 모국(母國)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

는데, 이는 모국(mother country)이라는 표현이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보다 더 정서적이고 문화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국립국어원, 2011). 하지만 태권도 종주국 혹은 태권도 모국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태권도 학계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 태권도 공식언어: 영어

태권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징(Cultural Identity)으로서 한복, 한글 등과 함께 Best 10로 선정되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홍보책자인 「IMAGES OF KOREA」에서는 태권도를 “한국고유의 전통무예로서 단순히 운동경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인의 혼이 깃든 하나의 행위예술”이라 설명하면서,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징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태권도, 태권도하면 한국’이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징으로 세계 속에 뿌리박혀 있다. 특히 태권도와 관련된 용어가 전 세계에서 모두 한국어로 사용됨에 따라 그동안 크게 관심 받지 않았던 한글/한국어가 태권도라는 문화적 소통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태권도가 세계화됨에 따라 태권도 관련용어 및 언어를 영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2011년 10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렸던 세계태권도연맹(WTF) 총회에서 연맹의 공식언어를 재분류하면서, 기존의 한국어, 영어, 불어 중에서 영어 하나만을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보조언어로서 한국어, 불어, 스페인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한국어가 공식언어에서 제외되고 만 것이다. 이에 태권도계와 각종 언론은 물론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소셜네트워크(SNS)에서까지도 비판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 사람들은 왜 세계태권도연맹의 결정을 비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태권도가 곧 한국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무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권도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우리의 힘으로 세계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대표문화라는 것이다. 특히 그 이면에는 세계태권도연맹 뿐만 아니라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의 역할 또한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태권도연맹은 공식적인 어떠한 동의도 없이 태권도의 세계화를 모토로 규약을 개정하며, 기존에 아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던 공식언어에 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한국어를 보조언어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물론 이 같은 세계태권도연맹의 결정은 태권도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2013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를 올림픽 영구종목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대명제하에 진행된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견해를 다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문화강국 코리아’ 지향의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태권도를 통해 우리말을 온전히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태권도의 세계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만약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대로 태권도의 공식언어가 영어로 지정되어 훗날 한국어의 사용이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면, 그 때에는 한국의 문화상징이 전 세계인에게 각인되어 있는 태권도가 아닌 한국음악(K-POP), 한국드라마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을까?

V. 결 론

이 연구는 “세계화 과정 속에 나타난 태권도의 이중성과 모국으로서의 갈등” 이란 주제 아래,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고,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재해석함으로써 전략적 수정을 통해 발생한 사적(史的) 오류를 최소화함은 물론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해 얻은 득(得)과 실(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은 분명 태권도 저변에 있어 양적확대 및 본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무술, 무예, 무도적 성향을 넘어 경기로의 변화를 꾀한 시도는 오늘날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올림픽 정식종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를 계기로 태권도의 세계화는 물론 태권도학과 개설 및 확대로 이루어지면서 태권도학의 독자적 학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통해 한글, 한국어 등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무술인 태권도가 대한민국 한류의 중심이 되었으며, 오늘날 전 세계 약 8천만 명의 태권도 수련인구가 한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태권도는 동양무술이 갖는 전통적 신체문화와 경기화 된 서양의 스포츠문화를 접목시켜 무도스포츠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의 슬로건처럼 ‘태권도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세계화의 성공과 함께 태권도의 정체성은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고, 모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요컨대 태권도는 두 가지의 요소, 즉 무도적 특성과 스포츠적 특성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즉 하나의 사물에 겹쳐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질을 의미하는 이중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보니 무술, 무예의 정신성과 연계되는 무도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포츠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일컫는 승리를 강조해야 하는 것인지 종종 딜레마에 놓이곤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득과 실), 오늘날 무도스포츠라 불리우는 태권도의 이중성과 모국으로서 역할 및 태권도 관련기구의 갈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가 갖는 이중성은 태권도사가 갖는 당연한 결과물이다. 태권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무술에서 경기로의 전환을 통해 급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권도가 무술 및 무예로서의 전통성을 무시하고 무도성을 배재하면서 무조건적인 경기화를 시도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당시 태권도 원로라고 불리우는 1세대 인물들은 오늘날의 문제를 예견이라도 하듯, 경기화를 극구 반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경기화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태권도의 세계화는 불가능하였을 것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 태권도는 이미 세계화에 성공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세계화의 성공요인에는 단연 경기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태권도의 경기적인 면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도적인 특성과 교육적 가치 등이 전 세계인들을 더욱 매료시키고 있다. 특히 점차 태권도 품새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스포츠에서 강조되었던 경쟁 혹은 승리의 가치를 넘어 오랜 수련과 자기수양을 통해 완성되는 태권도 기술의 아름다운 동작을 표현하며 미적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무도성의 회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무도성을 상실한 태권도는 완벽한 스포츠도 될 수 없다. 따라서 태권도가 무도스포츠로서 정착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도와 스포츠라는 태권도의 이중성을 넘어 하나의 통합개념으로 무도스포츠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무도계와 스포츠계로 구분되어 있는 오늘날의 태권도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모국인지 종주국인지라는 태권도 용어 논쟁은 우선 접어두기로 하고) 우리나라는 태권도 모국이자 종주국이길 소원한다. 그래서인지 태권도계의 모든 행정적 중심은 대한민국에 있다. 하지만 이제 모국 및 종주국으로서의 역할과 그로인해 생겨나는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세계화라 함은 ‘한 나

라의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나타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특정 국가가 지니는 주인의 개념을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공통된 문화 속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과정이 곧 세계화라 해석할 수 있다. 만약 태권도가 세계화에 성공하였다고 자부한다면, 이제 태권도는 더 이상 대한민국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사고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오늘날 세계화 된 태권도라 할지라도 그 중심은 단연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하면 태권도, 태권도하면 한국’ 이라는 사회적 이미지가 이미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 바로 ‘국기태권도’ 이다. 얼마 전 태권도 공인 9단 출신의 국회의원인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태권도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동발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태권도는 비로소 2018년 3월 30일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 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등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 통과되어 국기로 지정되었다.

태권도의 국기화와 세계화,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로 지정된 시점에서 ...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주인이라고 공표한 이 시점에서 ... 과연 태권도의 세계화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태권도의 세계화를 주창할지, 아니면 국기화를 주창할지 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용옥(1990).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통나무.
- 김은철(2013). 중국 태권도의 현대적 가치 탐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주연(2007). 태권도의 미국진출과 미국체육회 가입.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주연, 김은정, 정응근(2007). ‘코리안 카라테’의 등장과 태권도의 해외 진출: 1960년대 한인 태권도사범들의 미국 내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6(1), 33-43.
- 김지혁(2010). 태권도 경기의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논의.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지혁, 구강본, 남중웅(2016). 태권도, 그리고 무도스포츠. -다양성과 정체성의 경계에서-. 한국체육철학회지, 24(2), 167-185.
- 김지혁, 임일혁, 정재환(2013). 태권도장의 본질과 도장교육에 대한 인식의 재조명. 한국체육철학회지, 21(4), 217-230.
- 김홍식(2005). 무예 철학 담론의 흐름 : 성과와 과제. 서울대학교.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 나영일(2010). 태권도 해외 진출 역사 연구: 미국, 캐나다, 중남미 편. 태권도진흥재단.
- 나채만(2014). 태권도 투기에서 공연예술로. 대구: 이문Books.
- 남춘호(2014). 압축근대와 생애과정의 구조 변동. 지역사회연구, 22(2), 1-28.
- 박호정(2011). 확률적 확산모형을 이용한 외래종과 전염성 질병의 최적제어에 관한 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20(2), 357-379.
- 성제훈(2014). 태권도 세계화 과정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구명.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송준(2013). 세계화 대응전략과 지역문화의 중요성. 한국민속학, 58, 203-234.
- 송형석(2008). 태권도사 신문. 서울: 이문출판사.
- 송형석, 이규형(2008). 태권도역사논쟁 : 신전통주의의 수정주의 비판에 대한 역비판. 한국체육철학회지, 16(2), 157-177.
- 송형석, 이철 공역(2016). 사회의 스포츠: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에 기초한 연구들. 서울: 이론출판사.
- 신영호(2007). 한국무예 변천사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안용규, 김동규, 권오륜, 송형석, 김홍식(2011). 체육철학 : 스포츠 관련 용어 정의 재정립. 한국체육철학회지, 19(4), 33-60.
- 안재찬(2014). 동양무술의 기술체계 비교를 통한 태권도의 정체성 탐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양진방(1986). 해방 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양진방(1986). 解放以後 韓國 跆拳道의 發展過程과 그 歷史的意義.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양진방(1997). 태권도 역사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논의. 武道研究所誌, 8(2), 143-152.
- 양진방(1999). 무술, 무예, 무도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 대한무도학회지, 1(1), 27-37.
- 윤종완(2005). 태권도의 세계화 탐색. 한국체육과학회지, 14(1), 135-142.
- 이규호(1993). 현대철학의 이해. 서울: 민영사.
- 이병훈, 박시룡 공역(1992). 사회생물학. 서울: 민음사.
- 정찬모(2008). 태권도의 세계화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13(2), 129-141.
- 최재천, 장대익 공역(2006). 통섭: 지식의 대통합. 서울: 사이언스 북스.

한경희, 신규현(2011).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칙의 변천 요인. 대한무도학회지, 13(1), 1-12.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한승백, 오현택, 김동제, 권창기, 이상호(2010). 스포츠화 과정으로서의 태권도 세계화.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15-25.